



전북병무청, 병역지정업체장·산업기능요원 소통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11일 완주군 소재 병역지정업체(주)아시아를 방문했다.

(주)아시아는 울타리(펜스)를 생산하는 전북 향토기업으로, 지난 2019년부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10명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여건 속에서도 산업현장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대일 청장은 업체장과 환담 자리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숙련된 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근로권익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산업기능요원 근무 현장을 방문해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윤상 기자

“VR영화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전주국제영화제-한국콘텐츠진흥원, VR영화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주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이준동)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은 11일 '실감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VR영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서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과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VR영화 제작 및 국·내외 해외 진출 활성화를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준동 집행위원장은 “우수한 VR영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지원하며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상영하여 한국의 VR영화가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VR영화 지원을 위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VR영화 프로젝트 발굴 ▲산정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지원 및 수행관리 ▲완성된 VR영화의 상영, 홍보, 배급 등을 위해 협력하게 된다.

최근 VR콘텐츠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하면서 VR영화 역시 새로운 콘텐츠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 VR영화 제작과 상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추세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한국 영화산업에 새로운 장르적



확산 및 영화적 실현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영화산업과 실감콘텐츠 산업 양자 간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협력사업을 통해 완성된 VR영화는 2023년 전주국제영화제를 통해 상영될 예정이다.

VR영화 지원 사업 모집 공고는 4월 중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www.kocca.kr)에 게시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교대 보직교수들, 발전기금 1000만원 기탁

전주교육대학교 4명의 주요 보직교수들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전주교대에 따르면 최병연 교육대학원장 신기철 교무처장 탁병주 학생처장, 서현석 기획처장은 대학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뜻을 모아 발전기금을 전달했으며, 기탁식은 총장실에서 이뤄졌다.

4명의 주요 보직교수들은 “대학의 전통과 혁신을 이어 새로운 100년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총장님의 비전에 동참하고, 또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십시일반 모았다”고 전했다.

이에 박병춘 총장은 “보직교수들의 대학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립니다”며, “변화와 성장을 기대하는 구성원들의 열의를 담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인후3동 새마을협,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 펼쳐

전주시 인후3동 새마을협의회(회장 황승일)는 11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서 회원 20여 명은 인봉초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전지킴이 활동을 실시하며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펼쳤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0여 곳 횡단보도 진입로에 “STOP!! 좌·우 살피고 건너기! 무단횡단은 안돼요!” 등 시인성이 높은 보행자 정지안내스티커 100여 장을 부착하는 행사도 함께 추진했다.

황승일 회장은 “스쿨존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안전 주의는 각별히 요구되고 있다”며 “정지안내문을 통해 어린이 안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안전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봉사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남원시, 4월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 운영

남원시는 11일 부서장과 함께하는 날을 운영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이환주 시장은 간부들에게 새 정부 출범 가시화를 언급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역에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비롯해, 당선인 공약사항인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등 여러 중대 사업들이 존재한다”며 “이들 사업이 공약으로 그치지 않고 국정과제로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오는 6월에 지자체 공모가 확정되는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에 대해서도 언급, 선정이 우선이지만, 선정 이후 사업수행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의 준비를 지시하고, 오는 5월에 대면으로 치러질 제 92회 춘향제의 행정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말까지 진행됐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에 대해 “시민들이 건의하고 문의했던 내용에 대해 행정이 묵묵부답(黙黙不答)하면,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최대한 신속한 응답과 함께 해결에 촉각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홍보 마인드가 부족해 행정시책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부서장들은 늘 적기 홍보를 선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독립유공자 故 나성순님 유족에 명패 달아드려

전북동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은 11일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과 함께 故 나성순 지사 유족 자택을 찾아 독립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 중인 ‘국가유공자 명패달아드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동부보훈지청은 애국지사 故 나성순 님의 자녀 김양강 님에게 명패를 달아드렸다.

故 나성순 지사는 1929년 11월 전남 광주에서 광주유자 고등보통학교 재학 중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다가 퇴학 처분을 받았으며 이러한 공훈을 인정받아 올해 3.1절에 대통령표창을 수여 받았다.

최정길 지청장은 “故 나성순 지사를 비롯한 많은 독립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진안 용담면, 면민의 장 수상자 선정

진안군 용담면(면장 조영희)은 용담면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공익장에 유재길(62), 산업장에 유재문(69), 애항장에 고승희(75), 효행장에 문상철(71)씨를 각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공익장 수상자 유재길 씨는 약 20여년 동안 제철작업, 하계방역,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을 묵묵히 수행하며 면민들의 안전을 위한 지킴이로서 활발히 활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유재문 씨는 옥수수, 블루베리, 인삼, 고구마 등 다양한 작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 등을 펼쳐 온

점을 높게 쳤다.

고승희 씨는 제3·14대 재경 용담향후회장을 역임한 뒤 현재는 상임고문으로서 지난 20여년간 향우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문상철씨는 20여년 간 홀로 노모를 극진히 모시며 지극한 효성을 보여주고 지역 내에 경로 효행 분위기 조성에 일조한 점을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4월 16일 용담면 체련공원에서 개최되는 제26회 용담면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